

# ‘北으로 간 作家選集’ 펴내

을유문화사, 옛情 되살려 전10권으로

## 월북작가와의 옛인연에 남다른 감회

지난 7월 19일 월북작가 해금조치 이후 바로 작업에 들어간 을유문화사의 「北으로 간 作家選集」이 완간돼 나왔다. 전10권에 13명의 월북작가들의 작품을 담은 이 선집은 지금까지 나온 월북작가 작품집 가운데 가장 폭넓게 주목받는 작가들의 작품을 정선해서 실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6·25전 李泰俊의 장편 「思想의 月夜」, 단편집 「福徳房」을 비롯, 鄭芝溶의 「芝溶詩選」, 許俊의 장작집 「殘燈」, 安懷南의 장작집 「불」, 崔明珪의 「張三李四」, 金南天의 「麥」, 朴泰遠의 「聖誕祭」와 「이순신장군」, 洪命憲의 장편 「林巨正傳」, 金起林의 「詩의 理解」, 金瑒俊의 「近園隨筆」과 「朝鮮美術史大要」 등 수많은 월북 또는 남북문인들의 저술을 간행한 바 있는 을유문화사로서는 이번 선집의 발간에 남다른 감회와 의의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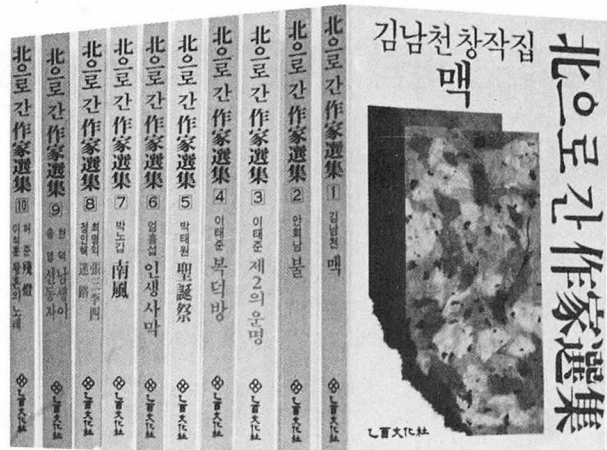
①권 「맥」은 카프의 이론적 지주였으며 장편소설 「大河」의 작가인 김남천의 장작집. 궁핍하기 이를 데 없었던 일제 말기의 시대적

상황이 잘 드러나 있는 13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②권 「불」은 안國善의 아들로, 스스로의 작품세계를 ‘父系문학’이라고 규정지었던 안희남의 장작집. 16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③④권은 30년대 카프문학의 열기 속에서도 끝까지 순수문학을 고집했으며, 세련된 문장을 구사, 후배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이태준의 작품집. ③권 「제2의 운명」은 한 순간의 오해로 인해 다른 길을 걷게 되는 두 남녀의 갈등과 농촌계몽에 대한 열정을 담은 장편소설이며, ④권 「복덕방」은 이 작가의 수준높은 단편 24편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 수록된 「까마귀」 「장마」 등은 시대상황과는 무관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천착한 단편들이다.

## 식민지시대의 어둠과 아픔 드러내

⑤권은 도회지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솔직담백하게 그린 세태소설가 박태원의 장작집. ‘묘사의 천재’로 불리는 그의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된 「소설가 仇甫氏의 一日」 「5월의 혼풍」 등 16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⑥권 엄홍섭의 「인생사막」은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장편소설이며, ⑦권 「南風」은 식민지시대의 농촌 또는 농민들의 삶을 질박하게 그린 박노갑의 장작집. 홍수나 가뭄, 질병과 같은 자연의 재난을 통해 피폐한 당시 농민들의 삶을 여실히 그리고 있다.

⑧권은 30년대 지식인들의 무기력과 절망감, 자조적 감정과 소외의식을 인상 깊게 음각한 최명익의 「張三李四」와, 룸펜과 허무주의자, 최소한의 민족적 자존심마저 포기해버린 인물을 통해 시대와 역사에 의문부호를 던지는 정인택의 「迷路」를 함께 실고 있으며, ⑨권은 치밀한 구성력, 적절한 토착어를 구사하여 향토색 짙은 모더니즘적 작품을 쓴 현덕의 장작집 「남생이」와 노동자계급을 가장 먼저 등장시킨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선두주자

송영의 「선동자」가 한권에 묶여 있다.

⑩권은 불투명한 시대와 현실에 대한 깊은 우울을 상징화시키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란 문제를 놓고 냉담하게 한 시대를 증언하고 있는 허준의 장작집 「殘燈」, 30년대 한국 어촌의 현실과 어민 계몽에 열정을 쏟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석훈의 「황혼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선집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는 현행으로 바꾸었으나, 다른 부분은 작가의 문학적 의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원작에 충실했으며, 권말에 문학평론가의 해설과 자세한 연보를 곁들여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A5신/각권 380면 내외/각권 3500원(③권은 4500원)

— 남진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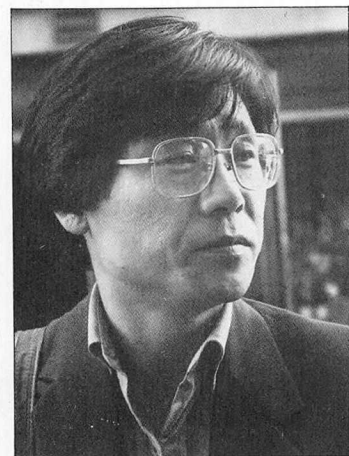
## 작품구상

# 성인이 된 소년의 회상

장편 「검은 겨울」

金 臣

소설가



지난 4월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몰락한 집안을 십년만에 일으켜 세움에 심신을 탕진하신 탓이었다. 그 어머니의 표정

하나하나, 일거수 일투족이 문득문득 섬찝섬찝 다가온다. 나는 이 작품을 어머니께 바쳐야 한다. 내 어머니를 招魂하여 모시고 원고지 한칸 한칸을 그분과 함께 메꾸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그 어려운 시절에 나는 장남이면서도 아무 도움도 되어드리지 못한 식충이로서 당신의 기대에 얼마나 큰 아픔을 드렸었는가를 통렬히 자책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무익했으나 이제 세월 흐르고 아들이 한 사람의 작가로서 쓰는 한 권의 소설이 70년대를 함께 했던 이땅의 모든 이들에게 휴지 이상의 의미로 육박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한 아픔이 저주만은 아니었음을 어머니님도 깨달으시리라.

집이 망하여 달동네로 이사해야 했었다.

1972년 10월.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일이 바로 그날이었다. 어둡고 춥고 길었던 겨울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십수년.

나는 그동안을 한낱 문약한 청년으로서 존재의 비밀을 치기와 현학과 관념과 폭음으로 어찌 해보려는 작업에 빠져 있었다. 범죄처럼 잔혹한 통증을 주던 빈곤을 짐짓 외면하고 살았다. 들이치는 비바람과 동거하는 쥐뉘와 무엇보다도 그 빈민군상들을 관계없음의 표정으로 지나쳐 왔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시절의 풍경이며 사건, 그리고 인물들 누구도 나에게 각인되지 않은 이 없다. 기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 똑바로 뜨고 빨아들었던 그 모두를 이제 나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소년은 그해에 열네살이었다. 아버지는 직업군인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죽었다. 어머니는 광기에 가까운 생활력으로 집과 가족을 지키려 한다. 형은 대학생인데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소위 운동권

학생이다. 고등학생인 누나는 미국 남학생 톰과의 펜팔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그리고 동거인들. 이제 성인이 된 소년의 회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마무리지를 것이다.

요컨대 1970년대를 해부하고 종합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으로써 더 갖게 되고, 못가진 자는 그 못가짐으로써 있는 것조차 빼앗겨야 했었다. 그 시대의 모순을 부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깨우친 이들의 희생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숙연해진다. 그때에 나는 전위도 아니었고 행동대원도 아니었음을 항상 빛으로 여겨왔다. 이번엔 나는 그들이 이루어놓은 사회과학과 문학의 성과를 연구하는 작업을 먼저 할 생각이다.

그러나 차츰 이런 이야기가 이분법의 용변으로 기울 수 있음을 부단히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학은 인간학으로서의 미학을 획득하지 못하면 문학일 수 없음을 잊지 말 일이다. 무서운 진실과 무서운 아름다움을 함께 언어야 한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는 말이 아니다. 내용과 형식의 절묘한 조화를 이르는 말이다.